

두산아트센터 제작

연극 <백년, 바람의 동료들> 공개 오디션

두산아트센터 'Space111'은 주요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무대화하는 기획연극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기획연극 <경계인 시리즈> 두 편의 작품 중 김수진 연출의 <백년, 바람의 동료들(가제)>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 대상/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남/여, 기성·신인 배우 모두 가능
- 연기, 노래, 악기 등 배역에 필요한 소질을 갖춘 자
(기타/하모니카/건반 연주 가능 여부 표시)

■ 모집부문: 남녀 주연/조연 배우 00명

■ 접수기간: 2011.2.17(목)부터 2.28(월) 오후 8시까지

■ 문의/접수: webmaster@doosanartcenter.com (메일 제목에 [오디션] 표기)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1.3.2(수) 이후 개별연락(이메일 또는 전화)
- 2차 오디션 : 2011.3.4(금)~3.5(토) 두산아트센터 연습실(지하2층), 일정 개별연락
- 최종 발표: 오디션 심사 후 개별연락(이메일 또는 전화)

■ 오디션 순서

- 연기(필수) : 지정 모놀로그 1개(첨부 내용) 및 자유 모놀로그 1개(본인 준비)
- 노래/악기(선택) : 자유곡(MR CD 또는 악보 본인 지참)

■ 제작 일정

- 2011.3. 제작발표회, 두산아트센터
- 2011.4.15~6.6 연습, 두산아트센터 연습실
- 2011.6.7~7.2 공연,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연극 <백년, 바람의 동료들(가제)>

신주쿠양산박 김수진 연출의 신작 <백년, 바람의 동료들>은 경계인으로 살아온 재일교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본 오사카로 이주해 살아온 재일교포들이 음식점에 모여 나누는 대화와

음악을 통해 재일교포 100년 역사와 치열했던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경계인으로 살아온 김수진 연출의 자전적 고민이 담겨 있다.

■ 연출_김수진 / 작_조박

김수진 연출은 일본 텐트극장과 앙그라 연극을 계승하여 독특한 표현 스타일과 스펙터클한 무대를 선보이는 극단 신주쿠양산박의 대표 및 연출가이다. 명쾌하고 독특한 그의 연출력은 1989년부터 국내에도 ‘인어전설’, ‘소녀도시로부터의 메아리’, ‘도라지’, ‘해바라기의 관’ 등의 작품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 제작_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는 매년 기획연극시리즈를 통하여 주요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무대화함으로써 관객의 관심과 더불어 평단의 호평을 얻고 있다. <2009 과학연극 시리즈>, <2010 인인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연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1 경계인시리즈>에서 우리 사회의 경계에 대해 고찰하며 다시 한번 굼직한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9 과학연극 시리즈 <과학하는 마음 3: 발칸 동물원편>,<산소>,<코펜하겐>,<하얀앵두>

-2010 인인인 시리즈 <코뿔소의 사랑>,<잠 못 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2011 경계인 시리즈 <The Author>,<백년, 바람의 동료들>

*본 오디션 공고의 일부 내용은 프로덕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정 모놀로그

남 게다가 돌아간다고 해도 쉽게 돌아갈 수 없었지. 친척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북한에 들어간 사람의 소식을 들으니 왠지 수상한 게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그런 억측도 난무했어. 그래서 숙부가 먼저 건너가서 편지를 보낼 테니 잉크로 쓰여 있으면 건너오고 연필로 쓰여 있으면 건너오지 마라는 의미로 알라며 배에 탔지. 당시에는 귀국사업에 박차가 가해져 특히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솔선해서 귀국했고 몇 억에 달하는 재산 전부를 북한에 기부하고 귀국한 사람도 있었어. 숙부로부터 편지는 오지 않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김일성의 사회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별달리 걱정하지 않기로 했지. 난 형제와 친척 모두를 보내놓고 여기 집과 가게를 전부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동생과 누나 다섯을 먼저 보냈어. 막내 여동생은 몸이 약해서 ‘나중에 오빠랑 같이 가자’고 남겨두고 반년 안에 가겠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지. 숙부로부터 편지가 온 건 그 이후의 일이었어. ‘여기 생활은 검소하지만 부족함은 하나도 없다. 의사도 학교도 병원도 전부 무료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역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매일이 감동이다. 하루라도 빨리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건강해라.’라는 평범한 내용이 연필로 쓰여있었지.

여 여러분 오늘 ‘바람 부는대로 사람 사는대로’ 개업 20주년 파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게도 웅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스무 살이었으니 젊었죠…… 이카이노를 뒤로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모임이나 만남의 장소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이 가게를 지었고 모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새는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다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간간히 보이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우정과 친목, 정보교환의 장입니다. 요리와 노래 조금 넓은 의미로 서민문화의 중심지로 남고 싶은 바램입니다. 단골손님 가운데 입이 험하고 성격이 불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 점은 너그러이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같이 합시다. 이카이노라는 지명은 옛날옛적에 사라졌지만 여기는 여전히 이카이노.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백 년 전부터 여기서 생계를 꾸려온 저희 선조와 백 년 후에도 여기서 살고 있을 저희 자손까지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이카이노를 지나다니며 생활하고 죽고 태어납니다. 북한이나 남한, 일본이나 조국도 이카이노에 비하면 작디 작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구는 한심스런 녀석들과 저는 앞으로도 같이 할 것입니다. 차별하는 나라와 제압하는 남성들, 장애인을 무시하는 바보들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모두에게 여기로 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공연하게 밀조된 막걸리를 마시고 아제의 훌륭한 요리를 즐기고 내일을 사는 것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백 년간 싸움도 투쟁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 죽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슬플 때는 같이 울고 힘들 때는 상부상조하며 진심으로 서로 이해했으니 이를 자랑으로 삼고 싶습니다. ‘바람 부는대로 사람 사는대로’는 그런 장소가 되고 싶습니다.